

자아위협과 지각된 통제감이 공격 행동에 미치는 영향[†]

남 가 영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수련생

박 준 호[‡]

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본 연구는 지각된 통제감 수준에 따라 자아위협 수준이 공격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이원상호작용가설을 세우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2 (자아위협 : 고/저) X 2 (지각된 통제감 : 고/저)의 완전무선설계였으며 83명의 대학생이 참가하였다. 자아위협 고조건은 글쓰기 과제 후 부정적 피드백(객관적, 주관적)을 제시함으로써 조작하였고, 자아위협 저조건은 글쓰기 과제 후 긍정적 피드백(객관적, 주관적)을 제시함으로써 조작하였다. 그 후 지각된 통제감 조작을 위해 소리 청취 과제를 실시하였다. 지각된 통제감 고조건은 소리유형, 소리 일시정지, 소리크기 조절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졌다. 반면에, 지각된 통제감 저조건은 소리유형, 소리 일시정지, 소리크기 조절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후 참가자들은 종속변인 측정과 조작점검을 위해 음료 맛 평가 및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공격 행동에서 자아위협과 지각된 통제감의 이원상호작용이 유의하여 가설이 지지되었다. 구체적으로, 지각된 통제감 저조건에서 자아위협 고조건이 저조건보다 공격 행동이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에 지각된 통제감 고조건에서는 자아위협 고조건과 저조건 간의 공격 행동에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아위협을 경험하더라도 지각된 통제감을 높여주면 공격 행동을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장래연구 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자아위협, 지각된 통제감, 공격 행동, 부정적 평가, 내적 통제

[†] 이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수정·정리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박준호, (52828)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Tel: 055-772-1268, E-mail: jjoon92@hanmail.net

2023년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비롯하여 편의점 직원 폭행 사건 등 우리 사회에서는 공격 행동과 관련된 범죄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각종 범죄와 관련된 공격성이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공격성은 사회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며(National Research Council, 2012), 우울 및 불안과 같이 개인의 심리적 건강이나(Lacey, McPherson, Samuel, Sears, & Head, 2013) 품행장애, 반사회성 성격장애, 간헐적 폭발 장애 등의 정신병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서수균, 권석만, 2002; 이지영, 황순택, 2011). 이렇듯 공격성의 여러 부정적 영향을 경감하고, 정신병리로의 발달을 예방하기 위해 공격성의 유발 및 유지요인을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다. 공격성은 다른 유기체에게 유해한 자극을 가하는 반응(Buss, 1961), 타인의 물건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행동(Mussen, 1970), 자신 또는 타인에게 상처나 고통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동(Aronson, 1980)으로 정의된다. 선행연구에서는 분노와 적대감의 개념을 공격성에 포함시켰는데, 분노와 적대감, 공격성의 3가지 개념은 AHA! 증후군이라고 불릴 만큼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으로 이해되어왔다(한덕웅, 이장호, 진검규, 1998; Spielberger et al., 1985). 그러나 분노와 적대감, 공격성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으로 분노는 정서, 적대감은 인지, 공격성은 행동에 해당한다(Martin, Watson, & Wan, 2000). 본 연구에서는 행동의 개념으로써 공격 행동을 살펴보고자 하며, 선행연구(Aronson, 1980)에서의 정의를 참고하여 공격 행동을 ‘타인에게 해를 입히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행동’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아울러 공격성은 표현 방식이나 목적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및 분류되고 있는데, 기능적 측면에서 주도적 공격성과 반응적 공격성으로 분류될 수 있다(Poulin & Biovin, 2000). 주도적 공격성은 자신의 욕구나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공격성을 표출하는 것이며, 반응적 공격성은 자신을 향한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격성을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Herr, Keenan-Miller, Rosenthal, & Feldblum, 2013).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상황에 대한 대처 반응으로서 공격 행동을 살펴보고자 하여 반응적 공격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며,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선호도가 낮은 음료수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양과 선호도가 낮은 음료수를 선택하는 빈도를 통해 공격 행동을 측정하고자 하였다(김민규, 박준호, 2018; Warburton, Williams, & Cairns, 2006).

공격 행동은 환경적·인지적·성격적 요인 등에 의해 발생한다. 좌절-공격성 가설(frustration-aggression hypothesis)에 따르면 부정 정서, 공격적 성향, 양육 환경, 상황적 해석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좌절 경험이 공격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고 제안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따른다(Berkowitz, 1989). 자아위협모형(threatened egotism model)을 살펴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관점과 타인으로부터의 부정적 평가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면 자아위협을 지각하게 되는데, 이때 외부 평가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유지하려고 하면 부정적 평가를 제공한 대상에게 부정정서가 발생하고 이는 공격성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한다(Baumeister, Smart, & Boden, 1996). 자아위협모형은 공격 행동의 원인으로 심리적 요인인 자아위협을 다루고, 부정정서가 심리

적 기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는 의의를 지니지만, 이러한 변인들 간의 관계가 자기애성 성향군만을 대상으로 검증되었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자아위협은 예상하지 못한 계획의 실패로 보상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개인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포함하고 있어 자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말하며, 주로 자존감, 자기애성 성격특질과 관련하여 연구되어 왔다(이상아, 장혜인, 2018; Baumeister et al., 1996; Besser, & Preil, 2010; Bushman, & Baumeister, 1998; Jones, & Paulhus, 2010; Konrath, Bushman, & Campbell, 2006; Smalley, & Stake, 1996). Bushman과 Baumeister(1998)는 참가자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를 제시함으로써 자아위협을 조작하였고, 부정적 평가를 받은 조건이 통제 조건에 비해 높은 공격성을 나타냈다. Twenge와 Campbell(2003)의 연구에서도 자아위협 조건이 비자아위협 조건보다 높은 공격성을 보였다. 위에서 언급된 선행 연구에서는 대부분 자기애성 성향군을 포함시켰으며, 자기애성 성향자들과 비자기애성 성향자들의 심리적 특성을 비교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기애성 성향자들이 비자기애성 성향자들보다 외부귀인(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자극추구 성향(손애리, 고은경, 황순택, 2010), 공격성(이세연, 유미숙, 2010; Bushman & Baumeister, 1998; Twenge & Campbell, 2003)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들이 공격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기애성 성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아위협과 공격 행동 간의 관계를 검증한 것은 공격 행동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힌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자기애성 성향이 없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유지하고자 하는 성향을 지니며, 위협을 지각하게 되면 그 상황을 극복하고 손상된 자신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Steele, 1988). 실제로 일반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에서 자아위협 유 조건이 무 조건보다 더 높은 공격 행동을 나타냈다(Konrath et al., 2006). Twenge, Baumeister, Tice와 Stucke(2001)의 연구에서도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자아위협 유 조건이 무 조건에 비해 구직자를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적 성격과 같은 참가자의 특성을 하나의 독립변인으로 선정하지 않고 순수하게 조작하여 종속변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자아 위협과 공격 행동 간의 인과적 관계를 명확하게 검증하고자 하였다.

자아위협 관련 선행연구 중 자아위협이 공격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검증되지 않은 연구들도 존재한다(이상아, 장혜인, 2018). 또한, 자아위협과 유사한 변인인 촉발상황을 독립변인으로 다룬 연구에서도 촉발상황이 공격 행동에 미치는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박유정, 2017). 즉, 자아위협을 경험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공격 행동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자아위협과 공격 행동 간의 관계에서 다른 심리적 변인의 역할이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자아위협이 진위된 공격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평가 피드백, 공격 대상의 사회적 지위, 집단소속, 익명성과 같이 주로 상황적 변인을 조절변인으로 선정하여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았다(이혜영, 석동

현, 2017; 하한술, 2020). 본 연구에서는 상황적 변인 이외에 인지적 변인이 조절변인으로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지각된 통제감에 따라 자아위협이 공격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지각된 통제감은 Rotter(1966)가 언급한 통제소재라는 개념으로부터 발전했으며, 통제 소재는 상황에 대한 결과를 귀인 하는 방식에 따라 내적 통제와 외적 통제로 나뉜다. 내적 통제를 많이 할수록 지각된 통제감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외적 통제를 할수록 지각된 통제감이 낮은 것이라 할 수 있다(서은비, 2017). 선행연구들에서는 지각된 통제감을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과 수단에 대한 지각(민병배, 원호택, 2000), 스트레스 상황에서 원하는 바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민하영, 1999)이라고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지각된 통제감을 ‘자신이 상황이나 행동을 통제하거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능력에 관한 믿음’이라고 조작적 정의하였으며, 지각된 통제감을 실험적으로 조작하여 상태적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각된 통제감과 공격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지각된 통제감 무조건이 유조건에 비해 공격 행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Geen, 1978; Warburton et al., 2006). 국내 연구에서는 조사연구를 통해 직장 내 배척 경험과 통제감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직장 내 배척을 경험하더라도 상황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지각하게 되면 공격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세연, 2017).

Warburton 등(2006)의 연구에서는 배척 상황과 무관한 영역의 통제감을 높여줌으로써 배척으로

인한 공격 행동이 감소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밖에도 지각된 통제감이 공격 행동,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통제감이 공격 행동과 불안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상황과 관련 없는 영역의 통제감을 조작하였고, 통제감 고조건이 저조건보다 공격 행동과 불안이 감소되는 결과를 보였다(Bowers, 1968; Telch, Silverman, & Schmidt, 1996).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적 의의를 고려해보면, 자아위협 상황은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제감을 부여하는 데에는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자아위협 상황과 무관한 통제감을 부여하는 것이 공격 행동을 완화한다는 것을 검증하면 현실적인 치료적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아위협 상황과는 무관한 통제감을 높여주는 것이 자아위협을 경험한 개인의 공격 행동을 완화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자아위협모형의 확장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통제감을 높여주는 것이 공격 행동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자아위협과 공격 행동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통제감이 조절변인으로 투입되었을 때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실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즉, 자아위협이 공격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지각된 통제감이 조절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으며 자아위협, 지각된 통제감과 공격 행동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타인에게 부정적 평가를 받는 등 자아위협을 경험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공격 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반면에 자아위협과 무관한 상황에서 통제감을 높게 지각하게 된다면 자신이 상황이나 행동을 통제하거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

다는 믿음이 증가하여 공격 행동이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주효과 및 이원상호작용효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자아위협이 공격 행동에 미치는 주효과: 자아위협 고조건이 저조건보다 공격 행동(선호도가 낮은 음료수 제공 양, 선호도가 낮은 음료수 선택 빈도)이 더 높을 것이다.

가설 2. 지각된 통제감이 공격 행동에 미치는 주효과: 지각된 통제감 저조건이 고조건보다 공격 행동이 더 높을 것이다.

가설 3. 자아위협과 지각된 통제감이 공격 행동에 미치는 이원상호작용효과: 지각된 통제감 저조건의 경우, 자아위협 고조건이 저조건보다 공격 행동이 더 높은 반면, 지각된 통제감 고조건의 경우, 자아위협 고조건과 저조건 간 공격 행동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방 법

참가자

본 연구는 경상국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 GIRB-A20-Y-0081)을 받아 교내 혹은 SNS 홍보를 통해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참가자 모집 시 총 3가지의 연구가 진행된다고 소개하였으며, 각 연구는 ‘대학생들의 문서작성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 ‘대학생들의 청각적 주의 집중력에 관한 연구’, ‘신제품 음료 개발을 위한 음료 맛평가’로 안내하였다. 실험

참가 보상으로 현금 10,000원을 제공하였고, 참가자들은 실험실에 도착하는 순서대로 각 조건에 무선할당되었으며, 독립변인이 조작되지 않은 5명과 연구목적에 파악한 3명을 제외하고 총 83명, 조건 당 20~21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의 경우 남자 31명(37.3%), 여자 52명(62.7%)이었다. 평균 연령은 20.93($SD=1.81$)세이었으며, 연령 범위는 만 18~만 25세까지였다. 학년의 경우 2학년(26명, 31.3%)이 제일 많았고 그다음 3학년(25명, 30.1%), 1학년(18명, 21.7%), 4학년(14명, 16.9%) 순이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별, 연령, 학년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하고 음료수 양을 준거변인으로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떠한 변인에도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p>.149$).

실험설계

2 (자아위협 : 고/저) × 2 (지각된 통제감 : 고/저)로 2개의 독립변인이 모두 집단 간 변인인 이원요인설계이다.

실험절차

연구 소개를 위해 참가자들에게 안내문(본 연구는 총 3가지의 연구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연구는 문서작성능력과 관련한 가지 주제에 대한 글을 작성하는 것으로 문서작성능력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기초조사 연구입니다. 두 번째 연구는 청각적 주의집중력을

알아보는 것으로 소리자극을 들은 후 제시되는 문제를 풀게 됩니다. 연구결과는 청각적 주의집중력 훈련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됩니다. 세 번째 연구는 본 연구를 의뢰한 국내 식품기업인 'L'기업에서 추가로 의뢰한 연구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음료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시중에서 판매 중인 여러 기업의 음료에 대해 맛 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을 제공하고 핸드폰과 짐은 물품 보관함에 보관 후, 컴퓨터가 있는 자리로 안내하였다.

참가자들에게 컴퓨터 화면을 통해 첫 번째 연구(문서작성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글 작성 과제)에 대해 소개하였다. 구체적으로, 다른 연구실에 있는 참가자들과 동시에 시작되는 연구로 글 작성이 끝나면 서로 글을 교환하여 평가하고 이후 자신이 작성한 글에 대한 평가 결과가 제시된다고 안내하였다. 글 작성 시 글의 주제, 작성 시간, 분량은 자아위협 고조건과 저조건 참가자들 모두 동일하게 제시되었다. 반면 자아위협 고조건은 글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저조건은 긍정적 평가를 받음으로써 조작되었다.

자아위협 조작 후, 지각된 통제감 조작을 위해 청각적 주의집중력을 평가한다고 안내하였다. 사전에 준비된 소리는 여러 가지 불쾌한 소리가 섞인 것이며, 이를 1분 동안 제시하였다(60dB). 참가자들에게 헤드셋 착용을 요청한 후, 지각된 통제감 고조건은 세 가지 소리 중 한 가지 소리를 선택하여 들을 수 있게 하였고(표면적으로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불쾌한 소리를 듣게 됨), 소리를 멈추거나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을 제시하였다. 반면 지각된 통제감 저조건은 세 가지 소리 중 한 가지 소리를 자동 프로그램

을 통해 무선적으로 선택되도록 하였고(표면적으로만 무선적 선택이며 실제로 불쾌한 소리를 듣게 됨), 소리를 멈추거나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 후 청각적 주의집중력 평가를 위한 질문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인 측정을 위해 세 번째 연구(신제품 음료 개발을 위한 음료 맛 평가)를 안내하고, 여섯 가지 음료를 제시한 후 음료 맛 평가를 실시하였다. 맛 평가 후 글 작성 과제를 같이 한 상대방에게 사전 선호도 조사에서 선호도가 가장 낮은 음료(차가버섯 음료)를 얼마나 주고 싶은지 양을 표시하게 하고, 제시된 여섯 가지 음료 중 자신이 주고 싶은 음료를 한 가지 선택하게 하였다. 맛 평가가 종료되고 조작점검을 위해 설문지 작성을 요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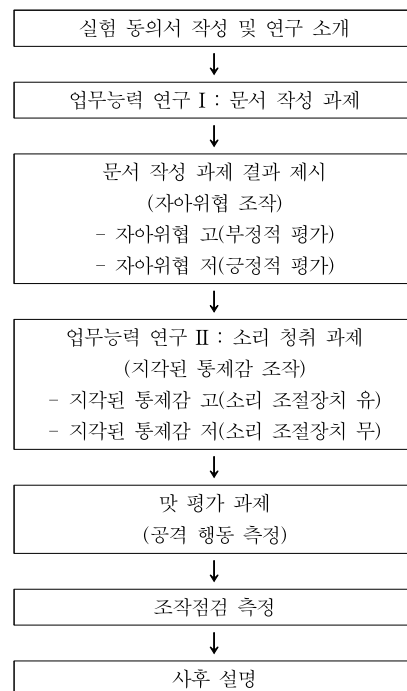


그림 1. 실험절차의 개요

설문지 작성이 끝나면 참가자에게 본 연구에 대해 요구특성이 있었는지 구두로 확인한 다음 본 연구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줄 것을 부탁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소정의 보상을 제공하였다. 모든 연구가 끝난 후 연구의 본래 목적을 알려주었다. 전반적인 실험 절차를 요약하여 그림 1에 제

시하였다.

독립변인 조작

자아위협 조작. 자아위협 조작은 Bushman과 Baumeiser(1998)의 연구(효과크기 $d=0.25$)와 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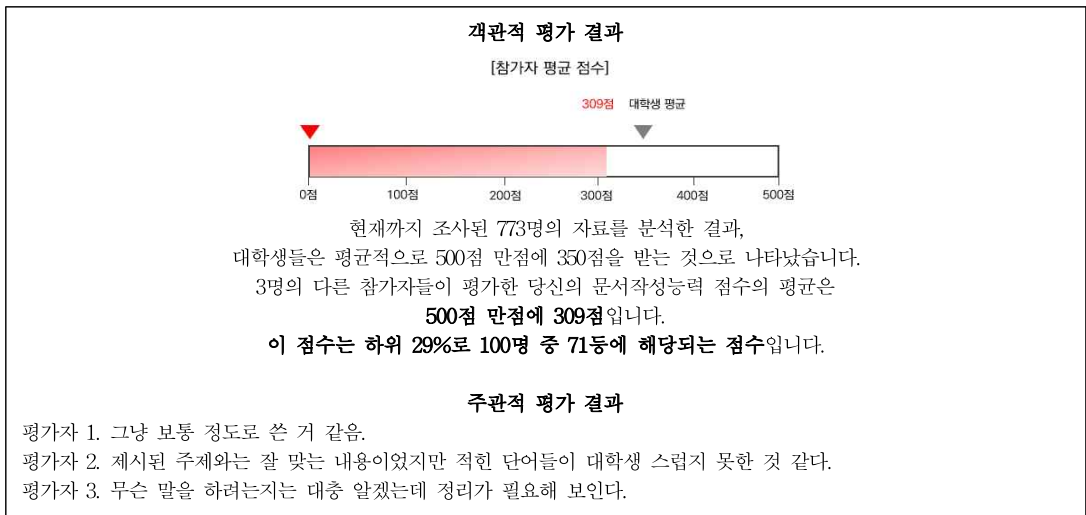


그림 2. 자아위협 고조건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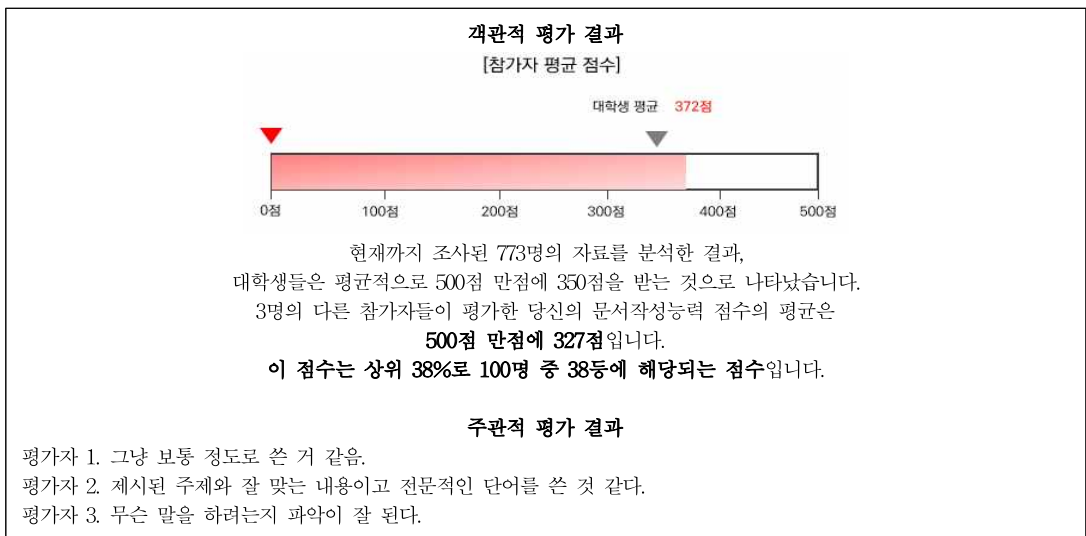


그림 3. 자아위협 저조건 평가결과

원과 박준호(2016)의 연구(효과크기 $\eta^2=.03$)에서 사용한 절차를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작성한 글에 대해 부정적 평가 또는 긍정적 평가를 제시하는 것으로 자아위협 수준을 조작하였고, 자세한 내용을 그림 2와 3에 제시하였다.

지각된 통제감 조작. 지각된 통제감 조작은 Warburton 등(2006)의 연구(효과크기 $\eta^2=0.14$)에서 사용한 조작방법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소리의 크기(60dB), 재생시간(1분), 소리의 종류(불쾌한 소리)는 동일하게 제시하였으며, 소리 종류 선택, 소리 일시정지, 볼륨 조절 가능 여부로 지각된

통제감을 조작하였다. 지각된 통제감 고집단의 경우 3가지 소리 선택지를 제시하고 참가자가 한 가지 소리를 선택 한 후 소리를 청취하는 동안 소리를 멈추거나, 볼륨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볼륨은 음소거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5dB로 조절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지각된 통제감 저조건의 경우 3가지 소리 선택지를 제시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무선적으로 한 가지 소리가 선택되도록 제시하였으며, 소리를 청취하는 동안 소리를 멈추거나 볼륨을 조절할 수 없도록 하였다. 자세한 조작 내용은 그림 4와 5에 제시하였다.





소리의 종류는 총 3가지(상쾌한 소리/백색소음/불쾌한 소음)이며, 이 중 한 가지 소리에 대해 청취하게 될 것입니다.
청취하게 될 소리는 참가자 본인이 선택하게 됩니다.
아래의 세 가지 소리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B C

소리는 1분 동안 재생됩니다.
제시되는 소리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사용하여 소리의 크기와 지속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소리 조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왼쪽 두 가지 버튼은 일시 정지와 재생 버튼으로 소리를 중지하거나 다시 재생할 때 사용합니다.
오른쪽 두 가지 버튼은 소리조절 버튼으로 소리를 높이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소리 재생 중입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소리의 크기를 조절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소리 재생시간은 1분이며, 소리를 끝까지 청취하여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재생 일시정지 볼륨 키우기 볼륨 낮추기

그림 4. 지각된 통제감 고조건 지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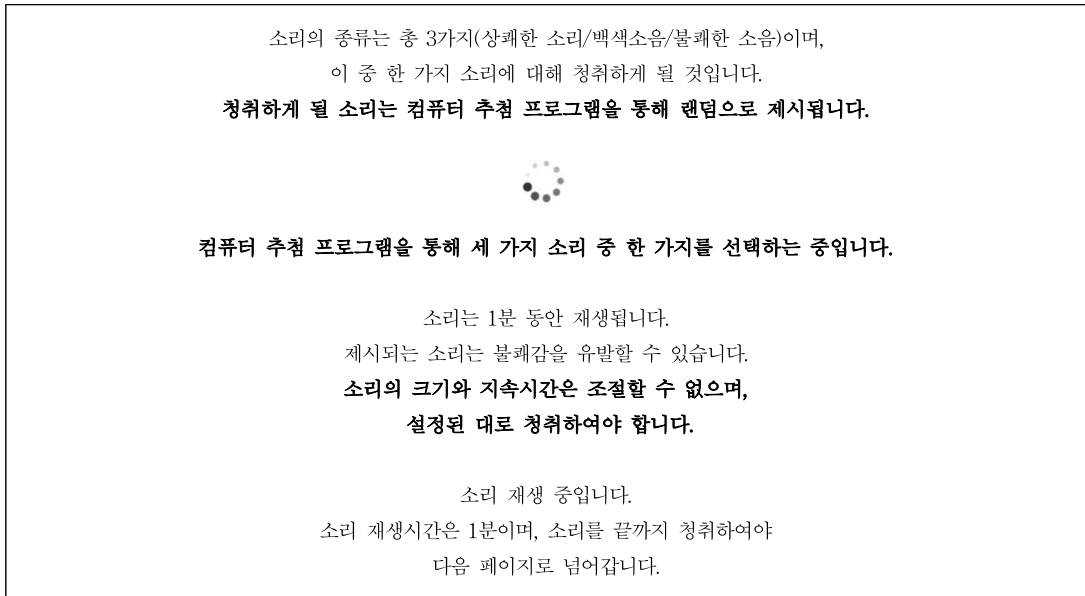


그림 5. 지각된 통제감 저조건 지시문

종속변인 측정

본 연구에서는 공격 행동을 두 가지 방식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Warburton 등(2006)의 연구에서 사용된 핫 소스 패러다임을 수정하여 선호도가 낮은 음료수를 타인에게 주는 양을 측정하였다. 이와 함께, 김민규와 박준호(2018)의 연구에서 사용한 음료수 선택 빈도를 종속측정치로 사용하였다.

예비연구(음료수 선호도 조사). 비공격 행동과 공격 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음료를 선택하기 위해, 경상국립대학교에서 20명을 대상(여자16명, $M_{age}=24.20$, $SD=1.70$)으로 음료수 선호도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시중에서 판매 중인 20가지 음료가 제공되었으며 ‘OO 음료를 종이컵 한 잔으로 마신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마시고 싶다고 생각

하였습니까?’에 대해 7점 리커트 척도로 물어보았다(1: 전혀 마시고 싶지 않다~7: 매우 마시고 싶다). 선호도 조사 결과, 선호도 평균이 1점~2점대로 나온 음료 2가지와 3점~4점대로 나온 음료 2가지, 5점 후반대로 나온 음료 2가지를 선택해서 총 6가지 음료가 선택되었으며 선택된 음료는 다음과 같다. 레몬즙($M=1.95$, $SD=1.15$), 차가버섯($M=2.80$, $SD=1.36$), 레쓰비($M=3.90$, $SD=1.94$), 황금보리($M=4.45$, $SD=1.54$), 사과주스($M=5.80$, $SD=1.20$), 밀키스($M=5.85$, $SD=1.09$).

음료수 양(ml). 사전 음료수 선호도 조사에서 선호도가 낮게 평가된 음료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양을 종속 측정치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이때, 선호도가 극단적으로 낮은 음료(레몬즙)를 제시할 경우 참가자 개인의 선호도가 종속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선호도가 평균 2점대로 조사된

음료(차가버섯)를 제시하였다.

우선, 공격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세 번째 연구(신제품 개발을 위한 음료 맛 평가)를 소개하고 맛 평가를 실시한 다음, 문서작성 과제를 같이 한 참가자들에게 제공될 음료 한 가지를 무선적으로 선택하게 하였다(표면적 장치이며 어떤 것을 선택하든 ‘차가버섯 음료’가 선택되도록 함). 그리고, 선택한 음료의 양을 문서작성 과제를 같이 한 참가자에게 얼마나 주고 싶은지 표시하게 함으로써(보기: 30ml, 60ml, 90ml, 120ml, 150ml, 180ml, 210ml), 종속 변인을 측정하였다.

음료수 선택. 차가버섯 음료 이외에 문서작성 과제를 같이 한 참가자에게 주고 싶은 음료를 한 가지 직접 선택하게 한 후, 선택한 음료의 빈도를 종속측정치로 사용하였다.

조작점검 측정

자아위협. 자아위협의 조작점검을 위해 ‘자신이 작성한 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받고 난 후, 평가 결과가 ‘부정적 평가’ 또는 ‘긍정적 평가’ 중 어느 것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였습니까?’, ‘자신이 작성한 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받고 난 후, 내 글을 평가한 상대방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은 ‘부정적’ 또는 ‘긍정적’ 중 어느 것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였습니까?’의 2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7점 척도(1 : 매우 부정적이라고 생각한다 ~ 7 :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로 제시되었다.

지각된 통제감. 지각된 통제감의 조작점검을 위해 ‘연구 2에서 소리를 듣는 동안 소리의 종류,

크기, 지속시간 조절에 대해 ‘자신이 결정’ 또는 ‘타인이 결정’ 하는 것 중 어느 것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였습니까?’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7점 척도(1 : 매우 자신이 결정했다고 생각한다 ~ 7점 : 매우 타인이 결정했다고 생각한다)로 제시되었다. 또 다른 문항으로 ‘연구 2에서 소리를 듣는 동안 소리의 종류, 크기, 지속시간 조절에 대해 ‘자신이 통제’ 또는 ‘타인이 통제’ 하는 것 중 어느 것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였습니까?’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7점 척도(1 : 매우 자신이 통제했다고 생각한다 ~ 7 : 매우 타인이 통제했다고 생각한다)로 제시되었다.

분석방법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SPSS 25.0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각 측정도구의 내적일관성계수 Cronbach's α 를 확인하였다. 두 번째로, 자아위협과 지각된 통제감이 공격 행동(음료수 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효과 및 이원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자아위협과 지각된 통제감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경우 어느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단순 주효과(simple main effect)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로, 음료수 선택빈도에 대한 검증을 확인하기 위해 Fisher의 정확한 검증으로 빈도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 과

독립변인 조작점검

자아위협. 자아위협 조작점검 문항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2 (자아위협 : 고/저) × 2 (지각된 통제감 : 고/저)로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신이 작성한 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받고 난 후, 평가 결과가 ‘부정적 평가’ 또는 ‘긍정적 평가’ 중 어느 것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였습니까?’ 문항에서 자아위협의 주효과만 유의하였다, $F(1, 82)=605.29, p<.001$. 구체적으로 자아위협 고조건 ($M=2.32, SD=0.69$)은 저조건 ($M= 5.95, SD=0.66$)에 비해 평가 결과가 더 부정적이라고 인식하였다.

또한 ‘자신이 작성한 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받고 난 후, 내 글을 평가한 상대방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은 ‘부정적’ 또는 ‘긍정적’ 중 어느 것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였습니까?’ 문항에서 자아위협의 주효과만 유의하였다, $F(1, 82)=293.79, p<.001$. 구체적으로 자아위협 고조건 ($M=2.95, SD=0.81$)은 저조건 ($M=5.79, SD=0.68$)에 비해 상대방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 부정적이라고 인식하였다.

지각된 통제감. 지각된 통제감의 조작점검을 위해 지각된 통제감의 조작점검 문항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2 (자아위협 : 고/저) × 2 (지각된 통제감 : 고/저)로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구 2에서 소리를 듣는 동안, 소리의 종류, 크기, 지속시간 조절에 대해 ‘자신이 결정’ 또는 ‘타인이 결정’하는 것 중 어느 것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였습니까?’ 문항에서 지각된 통제감의 주효

과만 유의하였다, $F(1, 82)=738.11, p<.001$. 구체적으로 지각된 통제감 고조건 ($M=1.48, SD=0.80$)은 저조건 ($M=6.24, SD=0.80$)에 비해 소리의 종류, 크기, 지속시간 조절에 대해 자신이 더 결정했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연구 2에서 소리를 듣는 동안, 소리의 종류, 크기, 지속시간 조절에 대해 ‘자신이 통제’ 또는 ‘타인이 통제’하는 것 중 어떤 것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였습니까?’ 문항에서 지각된 통제감의 주효과만 유의하였다, $F(1, 82)=424.59, p<.001$. 구체적으로 지각된 통제감 고조건 ($M=2.14, SD=0.93$)은 저조건 ($M=6.12, SD=0.81$)에 비해 소리의 종류, 크기, 지속시간 조절에 대해 자신이 더 통제했다고 인식하였다.

자아위협과 지각된 통제감이 공격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음료수 양. 각 조건별 선호도가 낮은 음료수 제공 양(ml)의 기술통계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고, 선호도가 낮은 음료수 제공 양(ml)을 종속측정치로 하고 2 (자아위협 : 고/저) × 2 (지각된 통제감 : 고/저)의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음료수 양에 대한 각 독립변인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자아위협의 주효과와 ($F(1, 82)=6.95, p<.05$), 지각된 통제감의 주효과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F(1, 82)=18.60, p<.05$). 아울러 이원상호작용효과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1,82)=4.32, p<.05$), 단순주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지각된 통제감이 낮은 조건에서 자아위협 고조건이 자아위협 저조건보다 음료수 제공량이 더 많

표 1. 자아위협과 지각된 통제감의 각 조건별 공격 행동(음료수 양)의 기술통계 결과

		자아위협				전체	
		고		저		M	SD
		M	SD	M	SD		
지각된	고	77.14	47.97	71.43	25.94	74.29	38.20
통제감	저	142.50	60.69	94.29	45.78	117.80	58.25
전체		109.02	63.20	82.86	38.53	95.78	53.51

표 2. 자아위협과 지각된 통제감에 따른 공격 행동(음료수 양)의 이원변량분석

변량원	df	F	partial η^2	p
자아위협(A)	1	6.95**	.08	.010
지각된 통제감(B)	1	18.60***	.19	.000
A × B	1	4.32*	.05	.041
집단 내 오차(S/AB)	79	(2169.30)		

주. 괄호안의 수치는 오차제곱평균(MSE)을 나타냄.

* $p < .05$, ** $p < .01$, *** $p < .001$

표 3. 지각된 통제감에 따른 자아위협의 단순 주효과(음료수 양)

변량원	df	F	partial η^2	p
자아위협 at 지각된 통제감(고)	1	.16	.00	.692
자아위협 at 지각된 통제감(저)	1	10.49**	.13	.002

주.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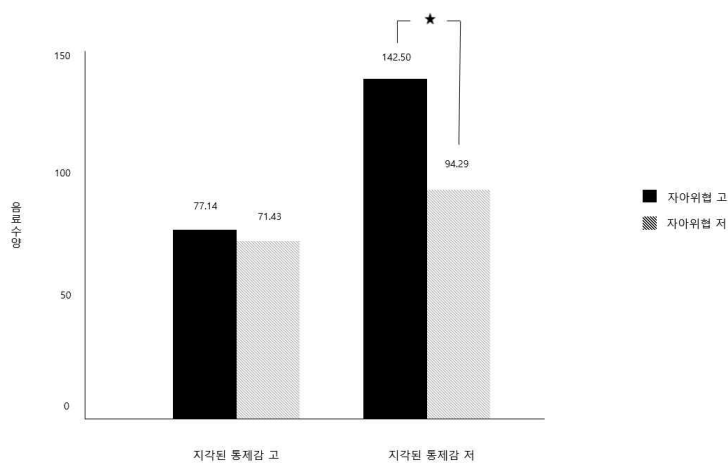


그림 6. 자아위협과 지각된 통제감의 이원상호작용 효과 그래프(음료수양)

있고, 지각된 통제감이 높은 조건에서는 음료수 제공양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를 그림 6에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음료수 선택. 주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자아위협 의 두 조건 간, 지각된 통제감의 두 조건 간에 따른 음료수 선택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표 4에 제시하였고, Man-Whitney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

표 4. 자아위협과 지각된 통제감의 음료선택 빈도표

		공격 행동	
		선호도가 중간이상인 음료 (공격행동X)	선호도가 낮은 음료 (공격행동O)
자아위협	고	25	16
	저	37	5
지각된 통제감	고	37	5
	저	25	16

표 5. 자아위협, 지각된 통제감에 따른 공격 행동의 Mann-Whitney 검정

변수	고	저	U	p
자아위협	16	5	627.50	.005
지각된 통제감	5	16	627.50	.005

표 6. 자아위협, 지각된 통제감 및 공격 행동에 따른 음료선택 빈도표

	자아위협	공격 행동	
		선호도가 중간이상인 음료 (공격행동X)	선호도가 낮은 음료 (공격행동O)
지각된 통제감 고	자아위협 고	17	4
	자아위협 저	20	1
지각된 통제감 저	자아위협 고	8	12
	자아위협 고	17	4

표 7. 자아위협과 지각된 통제감에 따른 공격 행동의 Fisher 정확검정

	값	자유도	접근 유의확률 (양측검정)	정확한 유의확률 (양측검정)	정확한 유의확률 (단측검정)
χ^2	8.07	1	.004	.006	.004
우도비	8.39	1	.004	.006	.004
Fisher 정확검정				.006	.004
선형대선형결합	7.98	1	.005	.006	.004
유효케이스 수	83				

표 8. 지각된 통제감의 각 수준에서 자아위협과 공격 행동에 따른 Fisher 정확검정

		값	자유도	점근 유의확률 (양측검정)	정확한 유의확률 (양측검정)	정확한 유의확률 (단측검정)
χ^2	지각된 통제감 고	2.04	1	.153	.343	.172
	지각된 통제감 저	7.22	1	.007	.011	.008
우도비	지각된 통제감 고	2.17	1	.141	.343	.172
	지각된 통제감 저	7.48	1	.006	.011	.008
Fisher 정확검정	지각된 통제감 고				.343	.172
	지각된 통제감 저				.011	.008
선형대선형결합	지각된 통제감 고	1.20	1	.158	.343	.172
	지각된 통제감 저	7.04	1	.008	.011	.008
유효케이스 수	지각된 통제감 고	42				
	지각된 통제감 저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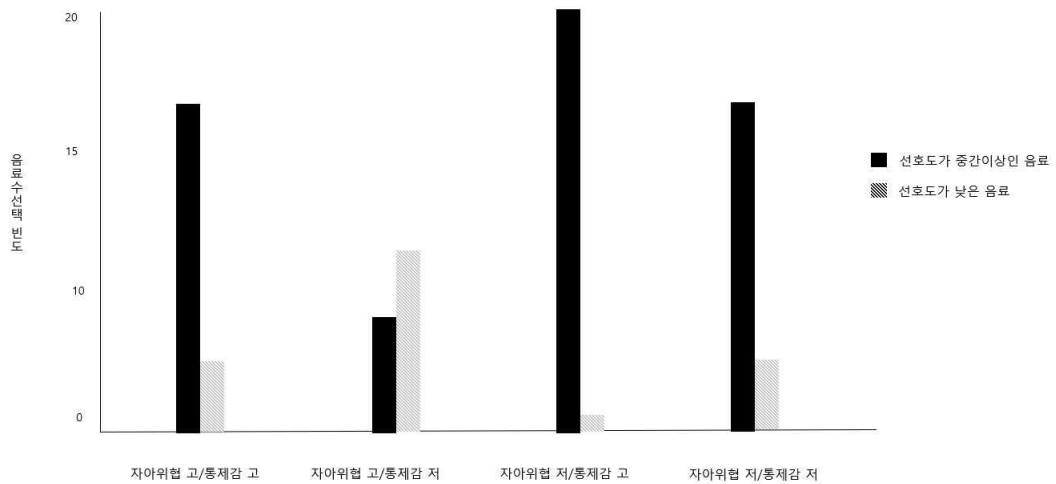


그림 7. 자아위협과 지각된 통제감에 따른 공격 행동 빈도(음료수 선택)

를 보였으며,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이원상호 작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음료수 선택을 종속측정치로 하고 2(자아위협: 고/저)X2(지각된 통제

감: 고/저)의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표 6에 제시하였다. 이는 Fisher의 정확한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6$),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

다. 구체적으로 자아위협이 공격행동이 미치는 영향이 지각된 통제감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각된 통제감 고일 때 2(자아위협 고/저)X2(음료선택: 비공격/공격), 지각된 통제감 저일 때 2(자아위협 고/저)X2(음료선택: 비공격/공격)의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Fisher의 정확한 검정분석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지각된 통제감 고일 때 자아위협 고조건과 저조건 간 음료선택 빈도에 차이가 없었으나($p=.343$), 지각된 통제감 저일 때 자아위협 고조건과 저조건 간 음료선택 빈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5$), 이를 그림 7에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자신의 주변 상황에 대해 통제감을 느끼는지에 따라서 자아위협이 공격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에 따라서 자아위협과 지각된 통제감을 조작하여 두 변인이 상호작용할 경우 공격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지각된 통제감 저조건의 경우 자아위협 고조건이 저조건에 비해 공격 행동(음료수 양, 선호도가 낮은 음료수 선택빈도)이 높게 나타나지만, 지각된 통제감 고조건의 경우 자아위협 고조건과 저조건 간의 공격 행동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결과를 보면 첫째, 자아위협과 지각된 통제감이 공격 행동에 미치는 주효과를 살펴보면 자아위협 고조건이 저조건보다 선호도가 낮은 음료수 제공 양이 더 많고, 선호도가 낮은 음료수를 선택하는 빈도가 높아 가설 1이 지지되었다. 이러

한 결과는 자아위협이 공격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입증한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Bushman & Baumeister, 1998; Twenge et al., 2001). 즉, 자기 자신에 대해 스스로 지니고 있는 관점과 타인의 관점으로부터의 차이가 발생하여 자아위협을 지각하게 되면 위협을 제공한 대상에게 공격 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Baumeister, 1996). 둘째, 지각된 통제감이 공격 행동에 미치는 주효과를 살펴보면, 지각된 통제감 저조건이 고조건보다 선호도가 낮은 음료수 제공 양이 더 많고, 선호도가 낮은 음료수를 선택하는 빈도가 더 높아 가설 2가 지지되었다. 이는 통제감을 상실한 개인이 통제감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로 공격 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Warburton et al., 2006) 시사한다. 특히, 지각된 통제감이 공격 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효과크기 값이 .19로 크게 나타나 자아 위협이 공격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기능에 있어 이론적 및 임상적 측면에서 지각된 통제감의 효과가 충분히 검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이원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면, 지각된 통제감 저조건의 경우, 자아위협 고조건이 저조건보다 선호도가 낮은 음료수 제공 양이 더 많고, 선호도가 낮은 음료수를 선택하는 빈도가 더 높은 반면, 지각된 통제감 고조건의 경우, 자아위협 고조건과 저조건 간에 선호도가 낮은 음료수를 제공하는 양이나 선호도가 낮은 음료수를 선택하는 빈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이 지지되었다. 이는 자아위협을 당한 상황에서 통제감을 높여주게 되면 자신이 상황을 스스로 통제하거나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게 됨으로써 공격 행동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박세연, 2017)으로 볼 수

있다. 통제감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통제감이 높아지면 대처하려는 동기가 높아지고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하며 능동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어 문제해결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 적응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MacNair & Elliott, 1992), 즉 자아위협 상황에서 통제감을 부여하는 과정이 공격 행동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째, Baumeister 등(1996)의 자아위협모형을 적용하는 대상을 확장시켜 공격 행동의 원인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한 데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자기애성 성향을 대상으로 자아위협이 공격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나 자기애성 성향군은 비자기애성 성향군과 비교했을 때 분노 및 분노수준이 더 높기 때문에(Twenge & Campbell, 2003) 심리적 특성 차이에 따라 공격 행동이 나타난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자기애성 성향군을 대상으로 자아위협이 공격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냄으로써 공격 행동의 원인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였으며 자아위협이 공격 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였다.

둘째, 기존의 자아위협모형(Baumeister et al., 1996)을 이론적으로 확장한 데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자아위협이 공격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거나 자아위협과 상황적 변인(평가자 지위, 내외집단)과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연구들은 있었으나, 지각된 통제감과 같이 인지적 변인을 조절 변인으로 선정하여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이에 자아위협과 지각된 통제감을 실험적으로 조작하여 지각된 통제감이 공격 행동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증명했으며 자아위협

이 공격 행동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지각된 통제감이 높으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냈는데 의의가 있다.

셋째,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임상적 장면에서 공격 행동을 나타내는 개인에게 치료적 개입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대개는 촉발상황과 관련된 영역의 통제감을 높여주는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직접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으나, 치료적 개입 장면에서 이미 과거에 일어난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다루는 경우에 제한이 따른다. 예를 들어, 공격성을 보이는 개인이 치료적 장면에서 왔을 때 이미 과거의 자아위협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통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한편, 공격 자의 식과 지각된 통제감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 발표 주제 및 발표 준비시간, 발표 종료시간 등에 대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 촉발 상황과 관련된 영역의 지각된 통제감을 조작한 결과, 지각된 통제감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의 효과크기 값은 .07로 나타났다(진원화, 박준호, 이민규, 2019). 반면, 본 연구에서는 자아위협 상황과 무관한 지각된 통제감이 공격 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효과크기가 .19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촉발상황과 관련된 영역의 통제감보다 촉발상황과 무관한 영역의 통제감을 높여 주는 것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치료적 장면에서 근본적 해결 방안이 어려운 경우에는 촉발상황과 무관한 영역의 통제감을 높이는 개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때, 통제감을 높이는 과정은 심리치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몇 가지 접근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음챙김 명상은 다른 곳으로 주의가 분산되었을

때 알아차림을 통해 원래 집중하고자 한 대상으로 돌아옴으로써 자신의 주의에 대한 선택권을 갖게 해주며 이는 개인에게 통제감을 부여하게 해준다(엄지원, 김정모, 2013). 아울러 마음챙김 명상을 활용한 인지치료가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전미애, 김정모, 2011), 마음챙김-자비명상이 분노 통제를 증진 및 상태 분노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이현숙, 황성훈, 2018). 이렇듯 주의를 스스로 조절하는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통제감을 높이는 개입을 한다면 공격 행동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넷째, 공격 행동 측정방법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국내에서는 주로 공격 행동을 측정할 때 자기 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며, 국외에서는 실제 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과제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음료수 선택 절차(김민규, 박준호, 2018)를 통해 공격 행동을 측정하여 음료수 선택 절차의 타당성을 검증한 것과 더불어, 국외 연구에서 공격 행동을 측정할 때 주로 사용하는 핫 소스 할당 과제를 선호도가 낮은 음료수 제공 양 선택 과제로 수정하여 공격 행동을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같은 시도는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것으로 핫 소스 할당 과제를 국내 연구에 적용할 경우 국내에서는 매운 소스에 대한 선호도 차이가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공격 행동을 측정함에 있어 타당도가 낮아질 수 있는 한계가 따른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매운맛에 대한 태도(예: 만약 가능하다면 나는 식사를 할 때 음식에 고춧가루를 추가하는 편이다, 매운 음식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에서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매운 음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진영,

차성미, 정라나, 김광욱, 정서진, 2009). 이 같은 선호도 차이와 대조적으로 본 연구에서 음료수 제공 양 측정 시 사용한 차가버섯 음료의 경우 선호도가 평균 1점대(전혀 그렇지 않다)로 조사되었으며($SD=1.11$), 선호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따라서 개인의 선호도 차이가 극명한 매운 소스보다는 예비연구를 통해 선호도가 낮은 음료수 제공 양을 측정하는 것으로 한국 문화적 특성에 맞게 공격 행동 측정방법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측정방법들은 자기보고식 질문지의 한계점인 사회적 바람직성 문제에 대한 대안적 방법이 사용될 수 있으며, 실험실 밖 상황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행동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장래 연구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경남 지역 20대 대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어 본 실험결과를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화하는 데 제한이 있다. 장래연구에서는 여러 지역 인구, 다양한 연령층에도 적용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둘째, 실험 종료 후 후속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이위협과 지각된 통제감이 공격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일시적인지, 지속되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의 특성을 각 조건에 고르게 분산시키기 위해 무선택당을 실시하였다. 다만, 선행연구에서는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분노감, 충동성, 부적응적 신념, 자기에, 부모의 공격성, 학대경험, 또래관계 어려움(심혜수, 2018)을 비롯하여 수치심(이다인, 양재원, 2022; 황지연, 연구진, 2018), 우울 및 품행장애 성향(박기환, 황선주, 2014), 경계선 성격특

성(이슬기, 장혜인, 2024) 등 다양한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회적 바람직성(박기환, 서민재, 2013), 수치심과 분노(신서원, 2014), 승부욕과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신체적 공격성(유홍식, 임상원, 김수정, 박원준, 김인경, 2004)을 공변인으로 선정한 연구들이 있었다. 이에 장래연구에서는 공격 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을 공변인으로 선정하고 통제하여 자아위협과 지각된 통제감이 공격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에, 조작의 장기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장래연구에서 후속 측정을 추가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겠다. 넷째, 진원화 등(2019)의 연구에서 지각된 통제감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크기와 본 연구에서 지각된 통제감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크기가 달랐던 점은 무관한 통제감이 더 높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지만, 사회불안과 공격 행동이라는 종속변인의 차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일 수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무관한 상황에 비해 관련 상황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이 공격 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효과크기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타나는지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권석만, 서수균 (2002).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487-501.
- 김민규, 박준호 (2018). 배척상황에서 지각된 공정성과 사회비교가 반사회적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5(11), 371-393.
- 김진영, 차성미, 정라나, 김광욱, 정서진 (2009). 한국적인 맛 관련 소비자 식태도 성향 분류 척도 개발.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24(6), 805-812.
- 민병배, 원호택 (2000). 강박사고와 걱정: 침투사고 대처 과정 및 관련 성격특성에서의 유사점과 차이점.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민하영 (1999).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과 내외 통제소재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기환, 서민재 (2013). 전위 공격성과 심리적 안녕감, 자아존중감, 신체화 및 우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1), 163-181.
- 박기환, 황선주 (2014). 우울-품행장애성향 청소년의 전위 공격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4), 1125-1144.
-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외현적, 내현적 자기에 명시적, 간접적 귀인양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2), 465-474.
- 박세연 (2017). 직장 내 배척경험이 관계적 공격 행동에 미치는 영향: 통제감의 조절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유정 (2017). 정서표현억제, 촉발상황, 성별이 간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수균, 권석만 (2002). 자존감 및 자기에 성향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809-826.
- 서은비 (2017).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의 관계: 지각된 통제감과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서원 (2014). 타당화가 자기에 성향자들의 수치심, 분노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심혜수 (2018).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엄지원, 김정모 (2013). 마음챙김 명상에 기초한 인지치료(MBCT)가 고등학생의 주의집중력과 우울 및 불안 감소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 연구, 20(3), 159-185.
- 유홍식, 임상원, 김수정, 박원준, 김인경 (2004). 폭력적 이종격투기 프로그램 시청이 수용자의 지각각성·

- 상태 분노·상대적대감 및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48(4), 147-174.
- 이다인, 양재원 (2022). 자존감 불안정성이 공격 행동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7(1), 27-44.
- 이상아, 장혜인 (2018). 좌절 상황에서 정신병질 및 자기에 성격특질이 공격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3(4), 903-923.
- 이세연, 유미숙 (2010). 청소년의 자기에 및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7), 101-128.
- 이슬기, 장혜인 (2024). 경계선 성격특성과 타인에 대한 공격성의 관계: 수치심 경향성과 특성분노의 순차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9(1), 65-87.
- 이지영, 황순택 (2011). 경계선과 반사회성 성격병리에서의 충동성과 공격성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1), 71-92.
- 이혜영, 석동현 (2017). 평가 피드백, 공격 대상의 사회적 지위 및 익명성이 전위된 공격 행동에 미치는 영향. *지역과 세계*, 41(1), 209-231.
- 이현숙, 황성훈 (2018). 단회기 마음챙김-자비명상이 분노의 역기능적 표현과 반추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3(3), 631-655.
- 임재원, 박준호 (2016). 사전반추와 차이감소기대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3), 495-511.
- 전미애, 김정모 (2011). 마음챙김에 기초한 인지치료(MBCT)가 청소년 수형자의 공격성과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1), 63-78.
- 진원화, 박준호, 이민규 (2019). 공격 자의식과 지각된 통제감이 사회불안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6(12), 455-486.
- 하한솔 (2020). 평가 피드백, 공격대상의 사회적 지위 및 집단소속이 전위된 공격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한덕웅, 이장호, 전경규 (1998).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STAXI-K).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3(1), 18-32.
- 황순택, 손애리, 고은경 (2010). 중학생 자기에 성향의 하위유형에 따른 기질과 공감 능력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7(3), 391-404.
- 황지연, 연구진 (2018). 내면화된 수치심과 전위 공격성의 관계: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의 이중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3(1), 147-166.
- Aronson, E. (1980.) *Social animals*. New York: W. H. Freeman & Company.
- Baumeister, R. F., Smart, L., & Boden, J. M. (1996). Relation of Threatened Egotism to Violence and Aggression: The Dark Side of High Self-Esteem. *Psychological Review*, 103(1), 5-33.
- Berkowitz, L. (1989). Frustration-aggression hypothesis: examination and reformul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06(1), 59-73.
- Besser, A., & Priel, B. (2010). Grandiose Narcissism Versus Vulnerable Narcissism in Threatening Situations: Emotional Reactions to Achievement Failure and Interpersonal Reject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9(8), 874-902.
- Bowers, K. S. (1968). Pain, anxiety, and perceived control.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2(5, Pt.1), 596-602.
- Bushman, B. J., & Baumeister, R. F. (1998). Threatened egotism, narcissism, self-esteem, and direct and displaced aggression: Does self-love or self-hate lead to viol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1), 219-229.
- Buss, A. H. (1961). Stimulus generalization and aggressive verbal stimuli.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61(6), 469-473.
- Eckhardt, C. I., & Deffenbacher, J. L. (1995). *Diagnosis of anger disorders*. In H. Kassirer (Ed.), *Anger disorders: Definition, diagnosis, and treatment* (pp. 27-48).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 Geen, R. (1978). Effects of attack and uncontrollable noise on aggress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2, 15-29.

- Herr, N. R., Keenan-Miller, D., Rosenthal, M. Z., & Feldblum, J. (2013). Negative interpersonal events mediate the relation between borderline features and aggressive behavior: Findings from a nonclinical sample of undergraduate women. *Personality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4*(3), 254-260.
- Jones, D. N., & Paulhus, D. L. (2010). Different Provocations Trigger Aggression in Narcissists and Psychopaths.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1*(1), 12-18.
- Konrath, S., Bushman, B. J., & Campbell, W. K. (2006). Attenuating the Link Between Threatened Egotism and Aggression. *Psychological Science, 17*(11), 995-1001.
- Lacey, K. K., McPherson, M. D., Samuel, P. S., Sears, P. K., & Head, D. (2013). The impact of different type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on the mental and physical health of women in different ethnic group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8*(2), 359-385.
- Li, Y., & Chu, X. (2022). Aggressive behavior, boredom, and protective factors among college students during closed-off management of the COVID-19 pandemic in China. *Frontiers in Psychology, 13*, 1012536. doi: 10.3389/fpsyg.2022.1012536
- MacNair, R. R., & Elliott, T. R. (1992). Self-perceived problem-solving ability, stress appraisal, and coping over tim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6*(2), 150-164.
- Martin, R., Watson, D., & Wan, C. K. (2000). A three-factor model of trait anger: Dimensions of affect, behavior, and cognition. *Journal of Personality, 68*(5), 869-897.
- Miller, N., Pedersen, W. C., Earleywine, M., & Pollock, V. E. (2003). A theoretical model of triggered displaced agg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7*(1), 57-97.
- Mussen, P. H. (1970). Aggression. In P. H. Mussen (Ed), *Carmichael's manual of child psychology* (Vol.2) (pp. 171). New York: Wiley.
- National Research Council. (2012). *Social and economic costs of violence: Workshop summary*. National Academies Press.
- Poulin, F., & Boivin, M. (2000). The role of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i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boys' friend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36*(2), 233-240.
-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General and Applied, 80*(1), 1-28.
- Skinner, S. (2011). *You hurt me, I'll hurt you: The prediction of aggression based on the interaction between an ego threat, fragile high self-esteem, and narcissistic trait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Greensboro, USA.
- Smalley, R. L., & Stake, J. E. (1996). Evaluating sources of ego-threatening feedback: Self-esteem and narcissism effect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0*(4), 483-495.
- Spielberger, C. D., Johnson, E. H., Russell, S., Crane, R. S., Jacobs, G. A., & Worden, T. J. (1985).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n anger expression scale*. In M. A. Chesney, & R. H. Rosenman (Eds.), *Anger and hostility in cardiovascular and behavioral disorder* (pp. 5-30). NY: Hemisphere.
- Steele, C. M. (1988). The psychology of self-affirmation: Sustaining the integrity of the self.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1*(2), 261-302.
- Telch, M. J., Silverman, A., & Schmidt, N. B. (1996). Effects of anxiety sensitivity and perceived control on emotional responding to caffeine

- challenge.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0(1), 21-35.
- Twenge, J. M., & Campbell, W. K. (2003). "Isn't it fun to get the respect that we're going to deserve?" Narcissism, social rejection, and agg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2), 261-272.
- Twenge, J. M., Baumeister, R. F., Tice, D. M., & Stucke, T. S. (2001). If you can't join them, beat them: Effects of social exclusion on aggress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6), 1058-1069.
- Warburton, W. A., Williams, K. D., & Cairns, D. R. (2006). When ostracism leads to aggression: The moderating effects of control depriv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2(2), 213-220.
- Wrosch, C., Barlow, M. A., & Kunzmann, U. (2018). Age-related changes in older adults' anger and sadness: The role of perceived control. *Psychology and Aging*, 33(2), 350-360.

원고접수일: 2024년 9월 23일

논문심사일: 2024년 10월 14일

게재결정일: 2024년 10월 14일

The Effects of Ego Threat and Perceived Control on Aggressive Behavior

Ga-Yeong Nam

Department of Psychiatry,
SoonChunHyang
University Hospital Bucheon

Joon-Ho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a two-way interaction hypothesis was proposed, suggesting that ego threat would influence aggressive behavior depending on perceived control. This hypothesis was verified through experiments involving a completely randomized design of 2 (ego threat: high ego threat/low ego threat) \times 2 (perceived control: high perceived control/low perceived control) with 83 undergraduate student participants. The high ego threat group received negative feedback (both objective and subjective) after a writing task, while the low ego threat group received positive feedback. Subsequently, a listening task was conducted to manipulate perceived control. The high perceived control group had options regarding sound type, sound pause, and volume control, whereas the low perceived control group had no options in these areas. Afterward, participants were asked to taste and evaluate beverages to measure dependent variables and were instructed to complete a questionnaire. The results indicated a significant two-way interaction between ego threat and perceived control on aggressive behavior, thus supporting the hypothesis. In the simple main effect analysis, for the low perceived control group, the high ego threat group allocated more low-preferred beverages than the low ego threat group. However, for the high perceived control group,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ggressive behavior between the two group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ven in the presence of ego threat, increasing perceived control can mitigate aggressive behavior.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words: ego threat, perceived control, aggressive behavior, negative feedback, internal control